

주요용어 : 간호연구, 현상학, 미학, 시적 사유

간호학문의 현상학적 연구에서의 미학적 사유*

공 병 혜**

I.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이 글은 간호연구에서의 과학적(scientific) 특성과 구분되는 미학적(aesthetical) 특성을 고찰하여 보고, 이것이 간호현상을 연구하는 질적 연구에 어떻게 응용되는 지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지금까지 간호학자들은 간호실무에서 이루어지는 간호행위의 심미적이며 예술적 특성에 대한 미학적 입장에 대해 많은 견해들을 피력해 왔으나(Carper, 1978; Wainwright, 2000; Kong, 2002), 간호연구와 미학과의 관계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Carper(1978)는 심미적 앎을 간호의 예술이라고 칭하면서 공감에 기초한 간호실무의 미학적 특성을 설명하려 했지만, 간호연구에서의 미학적 접근이 어떻게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간호연구를 미학과 연관시켜 고찰해 보는 의미는 바로 간호 연구가 기술 과학적 사유에 의해 분석하고 추론하는 방식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감성적이며 창조적인 사유방식에 의한 창작의 과정이며, 성공적인 연구물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간주할 수 있음을 말한다. 즉, 간호연구에서의

미학은 경험 과학적 방법에 의해 분석되고 기술될 수 없는 간호와 연관된 총체적인 인간 삶의 체험에 대한 의미를 감성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표현방식을 발견하는 시작(詩作) 과정과 관계한다. 특히 간호학자 Watson (1988)은 이러한 시적인 사유가 궁극적으로 간호의 감성적이며 예술적 특성에 맞는 총체적 간호현상에 대한 연구를 위해 적합한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실증적인 경험 과학적 사유방식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총체적 간호현상의 특성을 이해하기에 적절한 미학적 사유 방식이란 과연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간호연구에 어떻게 응용이 되는 지를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간호현상을 연구하는 질적 연구의 다양한 방식들에서는 연구주체의 성격에 따라 창조적이며 개방적인 미학적 사유가 적극 권장되고 있다. 특히 그 예가 현상학과 해석학적 방법에 의한 체험연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현상학적 연구에서 미학적인 시적인 사유는 연구주체에 대한 통찰력을 높이고 체험의 본질에 적합한 표현을 발견하기 위한 글쓰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있다. 이러한 미학적인 사유는 흔히 가설에 근거한 추론적 절차와 도구사용을 통해 연구대상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기술 과학적 사유방식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미학적

* 본 연구는 2001년도 조선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됨

**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전임강사

투고일 2003년 3월 25일 심사외뢰일 2003년 3월 25일 심사완료일 2003년 8월 4일

사유는 어떠한 전제나 가설에 의존하지 않은 채, 대상 그 자체를 응시하여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에 응답하는 사유태도이다. 이러한 사유에 의한 연구는 마치 인내를 가지고 체험의 새로운 의미가 탄생하기를 기다리는 예술 창조과정과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우선 철학적 미학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기술 과학적 사유와 구분되는 미학적 사유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현상학과 해석학에서의 미학 이론들, 특히 Heidegger와 Merleau-ponty 그리고 Gadamer의 이론에서 미학적 사유가 삶의 체험에 대한 진리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왜냐하면 이들 철학자들은 존재의 진리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 체험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미학적(aesthetical)인 사유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Heidegger와 Merleau-ponty 그리고 Gadamer의 현상학과 해석학에서 전개된 미학적 사유의 특성을 고찰하여 보고, 그것이 간호학문의 현상학적 연구에서 어떻게 응용이 되고 있는지 탐구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간호학문에서 응용되는 미학적 사유가 간호연구에서 지니는 의미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성찰하여 보기로 하겠다.

II. 본 론

1. 철학적 미학의 사유방식

철학적 미학에서의 미학적 사유는 주로 진리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시적(poetic) 사유라는 용어를 통해 주로 다루어져 왔다. 많은 미학자들은 시적 사유를 통해 획득되는 예술적 표현이 자연과 인간 삶의 진리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다양한 논의를 전개시켰다. 특히 바움가르텐(Baumgarten)은 이성적인 논리적 사유와 구분되는 시적인 사유로서 감성적 사유방식의 자율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통한 자연과 인간 삶에서의 진리가 인식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인간에게서 감성적 사유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시적 상상력, 감성적 판단력, 기억력, 예감능력, 예민한 감응능력 등이다. 이러한 감성적 사유를 통해 도달되는 대상에 대한 미적인 진리는 이성의 추론적인 합리적 사고에 의해 도달되는 추상적 진리보다 훨씬 명석하며 풍부한 내용과 생동감 그리고 구체성을 지니는 것

이다(Baumgarten, 1988). 그에 따르면 미적인 진리는 개별적인 사물을 직관함으로써 획득되는 은유나 상징을 통해 표현된다. 따라서 이러한 은유나 상징을 통해 표현되는 미적인 진리는 논리적 사고에 의한 비교와 반성을 통해 획득되는 개념적 진리와는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것이다(Giefert, 1996). 또한 Kant(1984)는 “판단력 비판”에서 전개된 자신의 미학이론에서 미적 사유를 이미 주어진 추상적 개념을 통해 어떤 사물을 사유하는 논리적인 사유방식이나 목적과 수단이란 관계에 따른 실용적 사유방식과 구분한다. 그는 미적 사유를 학문적 혹은 기술 실용적 관심이나 목적으로부터 벗어나 상상력과 사고의 자유로운 유희에 의해 사유하는 방식으로 특징 짓는다. 더 나아가 독일의 낭만주의의 미학자인 Schelling(1856)은 “선형적 관념론의 체계”에서 오로지 예술만이 시적 상상력에 의한 미적 직관에 의해 세계의 진리를 분석적 절차나 개념의 매개 없이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예술은 학문이 도달해야 할 최고의 경지이며, 모범이다. 왜냐하면 학문은 각 분야에 대한 진리만을 부분적으로 지니고 있지만, 예술은 모든 학문 분야에 걸친 진리들을 이미 자신의 창작의 전체 과정 속에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학문에서는 이성에 의한 단계적 추론적 절차를 통해 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결합하여 전체로 통합이 되지만, 예술에서는 부분과 전체와의 결합이 시적인 직관능력에 의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Kong, 1999).

이렇듯 철학적 미학에서의 전개된 미학적 사유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미학적 사유는 추상적 개념이나 가설을 매개로 하여 이성에 의한 논리적 분석적 추론적 절차에 따라 사물을 사유하는 과학적 사유방식과 확연히 구분된다. 즉, 미학적 사유는 상상력이나 시적 능력과 같은 감성적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함으로써 추상적 개념을 매개로 하지 않고 은유나 상징을 통해 생동감 있고 풍부하게 삶의 진리를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논리적이며 분석적인 과학적 사유에 의해서는 학문이 형성되지만, 직관적이며 총체적인 미학적 사유에 의해서는 예술이 창조되는 것이다.

2. 현상학과 미학적 사유

후설에 의해 창시된 현상학의 모토는 ‘사상 그 자체로 돌아가라’(Zurück zu den Sache selbst)이다. 이러한 ‘사상 그 자체’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현상학적 환원

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상학적 환원이란 바로 일상생활에서의 자연적 태도나, 선입견, 그리고 자연과학적 지식으로부터의 '판단중지(bracketing)를 통한 직접적이며 원초적인 체험으로 돌아가 그것의 본질을 직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마치 시인이나 화가에게서처럼 이성에 의한 논리적 과학적 사고의 개입이 없이 세계에 대한 순수한 시선으로 사물에 대해 놀라워하고 하는 태도와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 현상학은 바로 세계에 대한 개방된 태도를 가지고 항상 거기에 존재하는 것을 즉시 느끼고 직시하여 의식 속에 나타나는 현상을 직접적으로 붙잡아 명료화하고 형상화 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Crotty, 1996).

위에서 설명한 현상학적 태도는 현대의 철학자인 Merleau-ponty의 현상학과 Heidegger의 실존적 해석학, 그리고 Gadamer의 해석학에서 전개된 미학적 사유와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은 바로 예술가들의 시적인 사유야말로 현상학적 태도와 유사하며, 예술을 통한 시작(詩作) 행위야말로 존재에 대한 해석학이라고 말한다. 미학적인 사유는 자연과학적인 이론이나 가설에 의한 그리고 자연적 태도라는 습관적 사유를 중지하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존재의 진리를 새롭게 발견하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세계 내 존재'로서의 인간 삶의 근원적인 진리를 체험하게 하는 미학적 사유로서의 시적인 사유를 Merleau-ponty와 Heidegger의 현상학과 Gadamer의 해석학을 통해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

1) 메를로 폰티의 현상학과 시적 사유

Merleau-ponty(1945)는 “지각의 현상학”에서 현상학은 신체적 주관에 의해 체험된 근원적 삶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자 하는 태도를 지닌다고 말한다. 즉, 메를로-폰티에게서 현상학적 태도란 나의 신체에 의해 체험된 근원적인 지각의 세계로 돌아가서, 그 세계를 그대로 해명하여 의미를 발견하고 하고자 하는 세계보기의 한 방식인 것이다. 나의 신체가 거주하는 생활세계는 과학 이전, 반성 이전에 체험된 지각의 세계에 속하며, 현상학은 바로 그 세계 속에서 원초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메를로-폰티의 현상학에서 신체는 객관적인 삼인칭의 유기체로서의 신체가 아니라, 구체적인 환경에 몸담고 실존하는 주체로서의 몸이다. 즉 나의 몸은 정신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실존적 주체로서의 의식이 담긴 지향성

을 가지고 이 삶의 세계에 개방되어있다. 내 몸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온 만큼의 감각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삶의 체험 속에서 축적해 온 만큼 세계를 향해 보고 느끼는 지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나의 몸의 느낌은 지금까지 살면서 길들여진 나의 삶의 지각의 역사와 내 삶이 몸담고 있는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메를로 폰티에게서 사유와 의식은 바로 이러한 몸의 지향성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나의 몸은 의식과 정신, 학문과 예술의 근원적 출처라고 말할 수 있다. 색깔이나 소리, 촉감 같은 나의 이러한 몸이 지향하는 느낌은 바로 내 몸이 거주하는 세계와의 살아있는 교감인 것이다. 메를로 폰티에서 현상학은 결국 나의 몸과 세계와의 살아있는 교감으로서 원초적 지각의 세계에 대한 근원적인 체험을 기술하는 학문인 것이다.(Kim, 1999)

메를로 폰티에 따르면 몸에 의해 체험된 근원적 지각의 세계는 시적 사유를 통한 예술로써 표현된다. 특히 그는 “세잔느의 회화”라는 논문에서 세잔느의 그림은 우리에게 습관적 사고를 잠시 중단시키고 우리의 몸을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육화된 세계의 의미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한다. 그의 그림은 생각하는 것과 보는 것, 그리고 영혼과 신체의 구분이 없이 그 사람의 표정과 응시, 제스처 등을 통해 드러나는 암묵적인 육화된 삶의 의미를 회화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Merleau-ponty, 1983)

그는 현상학자는 마치 예술가들처럼 의미를 잉태하고 있는 현상을 발견하여 의미를 낳게 하는 산파역할을 하며, 이것은 마치 예술을 창작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말한다. 그는 발레리의 시, 발자크, 프루스트의 소설, 세잔느의 회화를 지적하면서, 현상학은 그들의 작품들을 창작할 때 요구되는 신중함과 경이로움, 그 의미가 발생하는 대로 즉시 포착하려는 동일한 의도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한다.(Merleau-ponty, 1945)

메를로 폰티는 현상학적 세계보기의 예로서 회화적인 사유방식에 대해서 말한다. 회화는 우리의 신체 속에서 일어나는 사물의 비밀스러운 발생을 보여준다. 화가는 감각적 시각적 요소들을 통해서 존재를 그려내며, 회화는 존재에 대해 말없이 사유하는 언어이다. 즉, 화가의 회화적 사유는 과학적 사고가 무시하는 존재로 접근하면서 자신의 신체를 통해 일상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선, 색, 면, 윤곽으로 보이게 하면서 세계의 의미를 탄생시킨다. 메를로 폰티는 세잔느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숲 속에서 나는 숲을 바라다보는 것이 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러 번 느끼고 했다. 어느 날, 나는 나무가 나를 바라보며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을 느꼈다.....나는 거기에 있었고 듣고 있었다.....”(Merleau-ponty, 1983) 여기서 회화적 사유란 어떤 대상을 바라보면서 나의 의식과 사고를 통해 그 대상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사유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 대상이 나를 바라보고, 내게 말을 걸어오면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하며 세계와 나의 몸이 서로 교감하는 사유인 것이다.

2) 하이데거의 실존적 현상학과 시적 사유

하이데거는 “휴머니즘의 서간”(1946)에서 그의 주저인 “존재와 시간”은 존재망각에 대한 근본적 경험으로부터 이루어졌다고 진술한다(Heidegger, 1981). 하이데거에 따르면 오로지 인간만이 자신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 관심을 살고 있으며, 따라서 그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인간 현존재의 방식에 대한 실존의 의미인 것이다. 그에 의하면 서구의 철학과 과학은 존재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연구에만 몰두를 해서 점점 존재에 대한 명상과 이해로부터 멀어져 갔으며, 궁극적으로 인간이 사물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사용하며 정복할 수 있는 가에 대한 관심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서구의 역사를 존재 자체의 의미를 망각한 과학과 기술공학의 진보의 역사로 보고, 이러한 존재망각의 역사가 유럽학문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비판한다. 그는 자신의 존재론이 바로 그 동안 잊혀진 존재의 의미를 되찾는 것이라고 역설한다.(Spiegelberg, 1991).

하이데거에 있어서 존재에로의 사색에는 두 개의 길이 있는 데, 그 첫째는 인간 현존재의 존재양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기 존재의 이해, 즉 실존에 이르는 길과, 두 번째는 존재의 의미에 직접적으로 이르는 길인 시적(詩的) 사유방식이라고 말한다. 하이데거는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기에 가장 적합한 방식은 기술적(descriptive)인 것이 아니라, 바로 시적, 예술적 사유를 통해 존재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말한다.(Spiegelberg, 1991)

하이데거는 자신의 후기의 철학인 “숲길”(Holzweg)과 “언어에로의 도정”(Unterwegs zur Sprache)에서 ‘세계 내 존재’(In der Welt Sein)로서 인간이 존재의 진리에 이르는 근원적 방식을 시적인 사유방식을 통해 전개시키

고 있다. 이러한 시적인 사유는 머무름, 참고 견딤, 기다림, 물러남, 그대로 둌(Gelassenheit)라는 용어로서 표현되는 마음에 간직하는 태도이다. 시적 사유방식은 현대의 과학이나 기술공학의 시대에 만연된 사물에 대한 통제나 조정을 하기 위한 조작적인 기술적 사유방식으로부터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존재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우리 자신을 열어놓는 개방적 태도를 지닌다(Zimmermann, 1987).

특히 하이데거에서 “그대로 둌”은 존재의 목소리에 우리 스스로를 개방하며 기다리고 청취하는 사색과 명상의 방식인 것이다. 사색은 사변적 추론과정과 대조적으로 대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거나 그것에 어떠한 성질들을 부여하지 않는다. 우리는 나무를 사색할 때 단지 우리의 마음의 눈앞에 드러나는 나무에 대해 스스로를 개방하고 고요한 침묵 속에서 그 소리를 청취하는 것이다.

이렇듯 그대로 둌, 참고 견딤, 응시 속에서 드러나는 존재의 목소리에로의 귀를 기울여 존재의 진리를 체험하는 사유방식이 바로 시적인 사유방식이다. 이러한 사유는 일종의 마음에 간직하는 사유(das andenkende Denken)이며, 회상적 사유 혹은 근원에 대해 생각하는 시원적 사유라고도 칭해진다.

하이데거는 자신의 저서 “예술작품의 근원”에서 예술작품을 통해 체험되는 존재의 진리는 열림(offenheit)이라는 일종의 존재의 사건으로 일컫는다. 회화, 시, 음악 등 예술작품은 진리를 비은폐성 가운데에서 드러나게 한다. 하이데거는 반 고흐의 작품을 예로 들면서 그 작품을 통해 농부의 생활세계의 진리가 열리며 보존된다고 말한다. (Heidegger, 1979) 하이데거는 예술작품 속에서 구두라는 사물을 응시하는 시적 상상력에 의해 열리는 존재의 진리의 사건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 구두라는 도구 밖으로 드러난 내부의 어두운 틈으로부터 들일을 하러 나선 이의 고통이 응시하고 있으며, 구두라는 도구의 실박한 무게 한 가운데는 거친 바람이 부는 넓게 펼쳐진 평탄한 밭고랑을 천천히 걸어가는 강인함이 쌓여있고, 구두가죽 위에는 대지의 습기와 풍요함이 깃들여 있다...이 구두라는 도구에 스며들어 있는 것은 빵의 확보를 위한 불평 없는 근심과 다시 고난을 극복한 뒤의 말없는 기쁨과 임박한 아기의 출산에 대한 전전긍긍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의 전율이다.... 이 구두라는 도구는 대지에 속해 있으며, 촌 아낙네의 세계가

운데 보존되고 있다.....”(Heidegger, 1979, p. 99)

이 그림 속의 구두를 응시하면서 일어나는 하이데거의 시적인 상상력은 아낙네의 삶의 세계의 한 가운데 깊이 뿌리내린 대지에 속한 구두에 대한 진리가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 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이데거는 “인문주의 서간”에서 존재의 집으로서의 언어와 그 언어를 지키는 시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존재의 소리가 인간에게 말을 건네 오고 이에 응답하는 것이 발생하는 데 이것이 바로 시적인 언어이다. 그 언어 속에서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며, 세계가 개방되며, 이 개방이 곧 존재의 밝힘인 것이다. 존재는 자신을 드러내면서 언어에게로 다가오며, 이러한 존재의 진리를 언어로 담아내는 사람이 바로 시인인 것이다. 시인은 존재의 진리를 언어 속에 담아 그것을 전달하려는 의무를 지닌다. 시인은 침묵하면서 존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 소리를 언어를 통해 응답한다. 시인은 존재의 진리를 돌보는 파수꾼(Wächter)인 것이다. 이러한 예술작품에 대한 경험은 곧 존재의 열림이라는 근원적인 진리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Heidegger, 1981).

3) 가다머의 해석학과 예술

존재의 해석학(Hermeneutik des Seins)으로서 하이데거의 후기 철학을 이어받은 가다머(1975)는 “진리와 방법”(Wahrheit und Methode)에서 예술작품을 이해한다는 것은 학문에서의 방법이 아니라, 일종의 존재의 진리가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러한 예술작품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삶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확장된다고 한다. 예술에 대한 경험은 마치 세계를 처음 대면한 것처럼 세계를 이해하는 자기이해의 지평들을 확대시켜주며 이 세계를 새로운 빛에 비추어 보게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생활 속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대상들도 예술에 의해 조명될 때 새로운 빛으로 나타나게 된다. 가다머(1975)에 의하면 예술작품에서 진리에 대한 경험은 예술작품 속에 내재하는 어떤 역사적 지평과 자기 이해와의 만남이라는 변증법적인 대화의 과정 속에서 생성되며, 이곳이 곧 이해(Verstehen)의 체험인 것이다.

즉 가다머(1975)에 따르면 예술작품에 대한 경험은 세계와 자신을 이해하는 지평들을 확장시켜준다. 예술작품은 우리 자신의 세계와 분리된 세계가 아니다. 즉 위대한 예술작품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재정립하게 되는 이해의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다. 예술작품에 대한 이해는 결국 작품자체가 우리자신에게 제기하는 물음을 수용하여 이 물음에 응답하는 변증법적인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술작품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존재의 이해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해의 지평을 변경시킬 수 있는 개방성을 지녀야 한다. 가다머의 해석학에서 예술작품에서의 진리에 대한 경험은 결국 예술작품의 역사적 지평과 그리고 자기이해의 지평과 서로 만나 서로 융합되어 새로운 지평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다(Palmer, 1993).

3. 간호학문에서의 미학적 사유와 현상학

위에서 서술된 철학에서의 미학적 사유는 특히 질적인 간호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응용될 수 있다. 즉 철학에서의 미학적 사유는 연구의 전과정을 예술적 창작의 과정으로서 이해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며, 이러한 창작과정의 결과물을 일종의 예술작품으로 평가하는 미학적 기준을 제공한다. 오늘날 특히 포스트모던 과학철학자들은 학문과 예술과의 경계를 허물면서, 훌륭한 연구물들을 예술작품에 비유하고 있다. 가장 성공적인 학자들은 궁극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함으로써, 아름다움 속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예술들과 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훌륭한 질적 연구물은 바로 학문으로서 진리탐구의 역할과 동시에 예술로서 미적 가치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Sandelowski(1995)는 질적 연구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표현의 방식, 의미 만들기, 문체의 독창성 등의 미적인 예술적 속성을 주목을 하며, 이러한 요소들이 질적 연구물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됨을 지적하였다.

시적인 사유를 통한 미학적 접근은 오늘날 포스트 구조주의, 여성주의, 해석학적 현상학 등을 응용한 다양한 질적 연구 분야에서 많이 응용되고 있다. 질적 연구에 있어서 미학적 태도란 구체적으로 작가나 예술가처럼 신중하고 사려 깊은 개방된 창작의 태도를 가지고 연구에 임하는 것을 말하며, 다양한 예술작품이 연구의 소재로서 사용됨을 의미한다. 특히 주제와 관련된 예술작품들에 대한 이해는 연구의 대상인 체험의 본질에 대한 통찰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한다. 그리고 이러한 예술적 과정에 의한 질적 연구물에 대한 미학적 평가는 마치 예술작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써의 내적인 일관성, 형식에 있

어서의 통일성과 조화, 독창성과 내용의 생동감과 풍부함 등이 응용될 수 있는 것이다.

간호의 질적 연구에서 응용되는 이러한 시적 사유방식에 의한 미학적 접근은 특히 현상학적 간호연구에서 가장 많이 시도되고 있다. 하이데거나 메를로 폰티의 미학적 사고에 근거한 현상학적 연구에서는 마치 예술가처럼 체험의 본질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선입견이 배제된 현상학적 보기(phenomenological seeing)를 필요로 하며, 체험의 본질에 대한 직시는 바로 시적인 표현을 얻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미학적 사유를 통한 현상학적 연구는 예를 들어 왓슨의 심층적 현상학적 간호연구나 벤 매넨의 현상학과 해석학적 방법에 따른 간호연구에서 가장 많이 응용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위에서 기술된 메를로-폰티나 하이데거, 가다머의 미학적 사유에 기초한 시적인 사유방식과 예술에 대한 경험이 간호학문에서의 현상학적 연구에 어떻게 응용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위의 철학적 미학에서 근거한 미학적 사유는 현상학적 간호연구에 다음과 같이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시작(詩作)으로서의 현상학적 간호연구, 예술작품을 통한 체험의 이해, 그리고 연구물에 대한 미학적 평가라는 영역에 응용이 가능한 것이다.

1) 시작으로서의 현상학적 간호연구

Watson(1988)은 예술로서의 초개인적인 돌봄의 과정을 탐구하기 위한 간호연구의 가장 적합한 방법은 심층적, 혹은 초월적 현상학(Depth or transzendental phenomenology)이라고 말한다. 이 방법은 체험의 본질을 서술적 언어를 통해 기술하거나 분석하지 않고, 시적인 표현을 획득하는 초월적 방법에 의해 건강과 불건강과 관련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한다. 이러한 방식의 철학적 기초는 메를로-폰티와 후기 하이데거의 철학과 관련한다. 왓슨은 시적인 사유에 의해 예술적 표현을 획득하는 심층적 현상학이 초개인적인 돌봄의 과정을 탐구하기 위한 가장 완전한 방법론이라고 말한다.

초월적 현상학은 인간경험의 심층에서 의미가 출현하는 과정을 통찰하고, 반성하여, 이에 대한 생동감 있는 언어를 얻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탐구의 과정은 시작의 과정, 창작의 과정이며, 그 결과는 시적인 표현을 얻게 된다. 왜냐하면 심층현상학에서 인간의 체험을 서술하기 위한 언어는 일상적 경험의 심층에 내재된 것을 새롭게 바라보고 심오한 의미를 깨닫는 표현방식이어야 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인간과학이면서 예술로서의 인간 돌봄에 대한 탐구는 상호 교호적인 감정과 심층적 경험, 그리고 이에 대한 시적 표현을 낳는 초월적 과정을 지나야 한다. 간호사는 초월적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서 타자의 정서적 경험에 대한 참여와 자기표현에 대한 갈망, 그리고 근원적인 경험에 대한 신뢰와 접촉할 수 있다. 여기서 간호에서의 초월적 현상학적 방법은 미학적 사유방식을 통해 인간 심층에 대한 인간상호간의 감동적 체험을 이해하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시적 표현이 생성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Watson, 1988).

특히 간호의 질적 연구에서 많이 응용되는 Van Manen(1990)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미학적 요소가 가장 많이 요구하는 방법이다. 그는 연구자에게 필요한 현상학적 능력은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세계에 대해 개방된 태도로 항상 거기에 존재하는 것을 즉시 느끼고, 직시하는 능력이라고 말한다. 연구자는 자신의 의식 속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붙잡아 반성하고 명료화하여 형태화시킬 수 있는 문화적인 글쓰기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현상학적 반성과 글쓰기 작업을 위해서 문학이나, 시 혹은 이야기(narrative)들에 담긴 현상학적 경험과 표현들에 대한 체험이 요구되며, 이것은 실제로 사물의 본질을 직관하여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개방된 태도와 통찰력을 길러준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Van Manen(1990)은 현상학적 연구는 일종의 詩作활동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시작활동의 특성은 과연 무엇인가. 시인은 어떤 대상을 대할 때 어떤 지식이나 이론이나 가정에 근거하여 그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다. 마치 시인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그 대상을 대하는 어린아이가 경험하는 그러한 경이로움을 가지고 세계를 보아야 한다. 이러한 세계보기의 방식으로서의 현상학적 태도는 마치 무언가를 불러일으키는 원초적인 말하기를 요구한다. 이것은 원초적인 경험에 대한 사유행위이며 말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세계에 대해 추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세계에 대한 원초적 체험을 시적인 언어를 통해 노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는 체험의 원초적인 접촉을 새롭게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언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러한 언어에 대한 의미는 풍부하고 생생한 체험을 불러일으킨다(Van Manen, 1990).

그러므로 미학적 성격을 지닌 현상학적 연구는 다른 질적 연구, 예를 들어 문화기술지나 근거이론 등에서처럼 어떤 주제에 대한 전제나 내용분석을 위한 분석적 부

호, 분류, 데이터 정리들의 기계적인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현상학적 연구는 계획, 결과, 결론이나 요약을 요구하지 않는다. 현상학의 방법은 근본적으로 체험의 의미에 대한 발견을 지향하기 때문에, 연구계획을 지배하게 될 미리 예정된 고정절차와 기술 및 개념들을 피한다. 따라서 현상학적 반성과정은 어떤 것의 본질적 성질을 드러내거나 명료하게 하는 과정이다. 하이데거는 이것을 '숲길'(Holzweg)을 따라가다 햇빛이 비추이는 '빈터'를 만나는 과정에 비유했다. 현상학적 연구가 가고 있는 그 길들은 주제의 물음에 대한 응답으로서 발견되거나 발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상학적 방법에 따른 연구자들은 일종의 작가로서 주제에 대한 민감성, 독창성, 학자로서의 날카로운 감각, 표현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체험된 삶의 현상들에 대한 적합한 표현을 발견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발견해야 한다(Van Manen, 1990).

현상학은 시처럼,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 침묵을 지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현상학적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언어의 주변에 맴돌고 있는 침묵에 민감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결코 언어로 표현된 적이 없는 근원적인 체험을 에워싸고 있는 침묵의 소리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침묵은 단순히 말이나 언어의 부재가 아니다. 즉 간호연구에 있어서 환자의 이야기에 담긴 체험을 표현하기 위한 적절한 말을 찾으려 하면서 우리는 각자가 지니고 있는 언어의 한계를 느끼는 침묵의 시간과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다. 즉 현상학적 보기와 글쓰기를 하는 사람들은 현상학적 순간, 즉 체험의 본질이 언어로 포착되는 순간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즉 현상학적 연구자는 파악했다고 생각한 그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하면서 이에 대한 응답이 언어로 표현되는 자기 확신의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마치 하이데거의 표현을 빌자면, 나무 운반로를 거쳐 마치 햇빛이 비치는 '빈터'를 우연히 만나는 경우와 흡사한 순간이다. 현상학적 간호연구자들은 이러한 통찰의 순간을 위해서 시나, 문학작품, 많은 종류의 예술작품을 대하면서 본래의 주제가 되는 체험에 대한 반복적인 반성을 해야한다. 현상학적 탐구의 전 과정은 신중하고 주의 깊은 사색과 숙고, 그리고 체험에 대한 정취를 하는 인내와 기다림 속에서 수행되며, 이는 마치 고된 예술 창조과정과도 같은 것이다(Crotty, 1996).

또한 Walton & Madjars(1999)는 작가와 간호사, 간호와 글쓰기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간호사가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는 방식은 작가와 같은 경청적 응시라고 말하고 있다. 즉, 간호사의 환자에 대한 경청적 응시(the listening Gaze)는 단순히 보면서 응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환자의 고통을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하고 이에 응답하는 개방적인 응시인 것이다. 이러한 환자의 질병이나 고통에 대해 감성적으로 느끼고 이해하고 접촉하는 간호사의 감성적 간호를 연구하는 방식에는 바로 현상학적 방법이 적합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간호사는 마치 작가의 글쓰기와 같은 자세로 환자를 사려 깊은 개방된 태도를 가지고 응시해야 하며, 이에 대한 감성적 체험에 대한 이해와 표현을 위해서 바로 현상학적 글쓰기 작업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성적 체험을 기술하기에 적합한 언어가 바로 감성적인 시적인 언어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감성적 언어들에 대한 민감성이 간호현상에 대한 이해와 연구를 위해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다(Walton & Madjars, 1999).

2) 예술작품을 통한 체험의 이해

문학과 예술은 현상학적 연구주제들을 이해하기 위한 원초적이며 본질적인 체험의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예술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생활세계에서 부딪히는 생생한 체험들에 대한 표현들은 주제의 본질에 대한 통찰력을 깊고 풍부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훌륭한 문학, 시 또는 다른 예술적 형식들은 현상학적 실제의 통찰력을 증가시킨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소설의 현상학적 가치는 작가의 시각과 직관적 감수성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랑, 슬픔, 질병, 믿음, 성공, 두려움, 죽음, 희망, 투쟁 혹은 사실 등과 같은 현상들은 소설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들이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사르트르의 구토, 카프카의 심판 등은 우리의 일상적인 습관적 삶에서 무디어진 감정이나, 사건, 상황 등을 생생하게 느끼고 사색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또한 소설은 가능세계를 창조함으로써 실존적 삶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혀주며, 개인이 아닌 인간 누구에게나 가능하게 일어날 수 있는 정황들을 보여줌으로써 인간 삶의 어떤 보편적이며, 본질적인 것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는 체험을 운문의 형태를 띤 시적 언어로 변형시키는 문학 형식이다. 시는 가장 집약된 형식으로 체험의 본질을 표현할 수 있게 해 준다. 해석학적, 현상학적 글쓰기

에서 시구들이 자주 인용되는 이유는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체험의 생생한 진실을 함축적인 은유를 통해 형상화함으로써 체험의 본질에 대한 직관에 도달하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호연구의 현상학적 체험연구에 있어서 문학작품은 생생한 체험이 집약된 원천으로서 주제에 대한 통찰력과 표현력을 섬세하고 풍부하게 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다. 특히 벤 매년의 현상학적 방법론을 따라서 쓰여진 질적 연구물에서 소설, 시, 수필, 회화, 조각 등의 예술작품으로부터 연구주제에 대한 현상학적 경험을 추적하고 이에 대한 적합한 시적 표현들에 대한 묘사를 언어낼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살아있는 체험의 원천으로서의 예술작품을 통해 연구자는 주제에 대한 체험의 본질을 통찰하고, 반성해 봄으로써 그것을 적합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현상학적 태도와 글쓰기과정을 배우고 준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3) 현상학적 간호연구에 대한 미학적 평가

질적 연구로서의 현상학적 간호연구에 대한 미학적인 비평은 연구결과물이 성공적인 예술작품으로서의 타당성을 지니는가에 대한 평가와 관계한다.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대한 관점은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이다(Shin, 2000). 사실적 가치는 연구가 실제 체험에 근거해서 그것에 대한 서술이 과연 신뢰성을 지니는지, 그리고 주제와 관련된 자료들이 과연 연구의 주제와 목적에 맞게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자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적인 일관성을 지니고 있는 가이다.

그러나 현상학적 연구물을 미학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은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기준은 전체로서의 조화와 통일성이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주제의 본질이 명석(clear)하게 드러나 있는가, 언어적 표현이 풍부하고 생동감이 있어 예술적 체험이 가능한가 라고 말할 수 있다. 즉 형식에 있어서의 미학적 기준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전체와 부분과의 관계가 조화와 통일을 이루는 유기적인 결합과 균형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현상학적 연구를 미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적인 기준은 마치 훌륭한 예술작품을 읽듯이 독자와 함께 공감하면서 사과의 지평을 넓히며 생생한 감동을 체험하는 것에 있다. 즉, 훌륭한 현상학적 연구가 성공적인 예술작품으로 평가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형식적으로 전체

와 부분사이의 유기적인 통일성과 그리고 내용적으로 주제로서의 체험의 본질을 통찰하게 함으로써 생생한 감동을 줄 수 있는 예술적 체험에 있는 것이다.

또한 질적 연구물을 예술 작품으로서 이해하는 과정은 의미의 이해에 도달하는 대화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가다머의 해석학적 입장에 따른다면 텍스트와 독자와의 만남은 텍스트 그 자체의 지평과 독자의 이해의 지평이 서로 융합됨으로써 만나는 진리에 대한 체험이다. 여기서 현상학적 연구물을 이해하는 과정은 마치 소설을 읽듯이 물음과 응답이라는 변증법적인 대화 과정을 통해 주제 그 자체의 근원적 이해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특히 벤 매년의 방법에 따른 간호연구물들을 읽는 과정은 마치 예술작품과 대화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혀나가는 예술적 체험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4) 현상학적 간호연구에서의 미학적 사유의 예

지금까지의 이러한 미학적 사유가 국내의 간호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주로 벤 매년의 현상학적 방법에 따른 체험연구들이었다. 특히 Shin(2000)의 “유방절제술을 경험한 여성 체험연구”의 예를 들어보자. 이 연구에서 미학적 사유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분은 실존적 조사에서 연구자 개인의 체험을 기술한 문학적 글쓰기이다. 그리고 유방을 들어낸 경험을 다룬 시나 수필 등 예술작품은 주제의 본질을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대상자와의 심층면담과정에서 자신들의 경험을 상기시키고 묘사하는데 실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주었다. 해석학적 현상학적 반성에서는 체험의 본질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농축된 시적 언어를 통한 문학적 글쓰기가 돋보였다. 예를 들자면 ‘질병의 뿌리- 천벌, 박복한 여인’, ‘병혼을 통해 본 자기 상실’, ‘살얼음을 걷는 듯한 삶의 나날’ 과 같은 주제들이 거미줄의 매듭처럼 이어지며 전체의 의미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 연구과정의 최종단계로서의 현상학적 글쓰기에서이다. 연구자는 유방절제술의 체험에 대한 전체 주제들을 통합적으로 엮어내는 문학적 글쓰기를 통해서 체험의 본질에 도달하게 하는 생생한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Kim(2000)의 “관절통을 경험한 도서지역 여성의 체험 연구”에서 미학적 사유가 나타나는 부분은 현상학적 반성이 이루어지는 주제 분석에서이다. 거기서 연구자는 섬 여인들의 관절통의 통증 체험을 있는 그대로

로 생생하게 전달하는 문학적 글쓰기가 체험의 본질적 주제를 서술하는 데에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잘라버리고 싶은 처절함” “산후 한풍으로 인한 시련” “뺏속까지 갯바람이 스며들” 등의 주제에 대한 표현들은 통증 체험에 대한 공감을 생생하게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또한 Jo(2000)의 “중년 남성의 몸의 변화에 대한 체험연구”는 특히 연구주제와 관련된 시나 수필, 소설, 미술사, 사진 작품 등을 심층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체험의 본질로 향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해석학적 반성적 글쓰기 부분은 체험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느끼게 해주는 감성적 언어의 풍부함과 민감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한국사회에서 중년 남성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피부는 쭈그러지고, 주름은 깊게 패이고 머리카락은 들쭉날쭉 빠지기 시작하고 ... 자신의 몸에서 어딘지 모르는 뼈꺼림을 느낀다.”(Jo, 2000, p.143)

위의 예에 보여주듯이 미학적 사유를 드러내고 있는 연구물들은 마치 훌륭한 예술작품을 읽듯이 주제의 본질에 대한 통찰로 나아가는 일관성과 통일성을 지닌 형식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내용적으로는 체험의 본질에 대한 근원적 체험을 생생하게 공감하게 하는 감성적 언어를 매개로 하여 삶의 지평을 확장시켜주는 이해 과정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철학적 미학에 근거한 미학적 사유방식의 특성을 고찰하여 보고, 그것이 간호의 현상학적 연구에 어떻게 응용되는 지 탐구하여 보았다. 인간의 건강과 불건강과 관련된 총체적인 인간 삶의 체험이 간호연구의 존재영역이라면, 미학적 사유방식은 존재중심, 대상자중심의 사유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대상자의 삶의 체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입견 없는 사려 깊은 응시와 경청과 사색과 배려가 요구되는 사유태도와 체험을 생생하게 표현하여 전달하기 위해서는 개념적 언어보다는 감성적 언어가 요구된다. 여기서 우리는 간호의 현상학적 연구의 과정이 마치 체험의 의미가 새롭게 잉태하는 과정을 인내하는 예술창조과정과 유사한 시작 과정임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학적 간호연구에서의 미학적 사유는 특히 대상자의 체험의 본질을 통찰하게 함으로서 각 각의 대

상자에 적합한 간호를 하기 위한 요구되는 태도이다. 미학적 사유는 후설이나 하이데거가 지적한 대로 인간성이 상실된 학문의 위기를 불러온 과학 기술적 사유방식에 의해 물들지 않은 생활세계의 근원적 체험을 있는 그 자체대로 이해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사유방식은 바로 간호대상자의 체험의 본질에 근거하여 간호행위를 하기 위한 연구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태도인 것이다. 이것은 간호대상자의 체험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주어진 이론적 가설이나 절차, 개발된 도구에 의해 자료를 분석하고 정량화 하는 기계적인 사유방식과는 근본적으로 구분된다. 간호대상자의 체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현상학적 연구는 스스로 발견하고 창조해야 하는 과정이다. 특히 체험의 본질을 반성하여 재 기술하는 현상학적 글쓰기에서는 생생한 체험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감성적 언어, 즉 메타퍼의 사용이 중요하다. 대상자의 개별적인 고유한 체험들을 개념으로 포괄화시키고 통계적 수치로서 표시한 양적인 연구의 결과물에서 소중한 체험의 생생함과 그 의미를 읽어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현상학적 간호연구자는 체험의 본질에 대한 직관력과 반성적 능력, 그것에 생명감을 불어 넣어주는 시적 언어에 대한 감수성을 계발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여겨진다.

궁극적으로 현상학적 간호 연구에서 미학적 사유가 지니는 가치는 간호대상자의 체험의 본질에 대한 근원적이며 생동감 있는 이해를 함으로써 대상자 중심의 감성적 특성을 지닌 간호행위를 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간호연구에서 이러한 미학적 사유는 대상자의 체험의 특성에 적합한 전인적이며 감성적 간호행위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태도인 것이다. 이러한 미학적 사유를 간호연구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연구자는 다양한 예술작품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대상자의 체험의 세계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이해의 지평을 넓혀야 하며, 체험의 본질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감성적 언어에 대한 민감성과 표현력개발하기 위한 노력과 반성적 글쓰기에 대한 훈련을 하여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Baumgarten, A. G. (1988). *Theoretische Ästhetik. Die grundlegenden Abschnitte aus der 'Aesthetica'(1750-58)*. Hamburg: Felix Meiner.
- Carper, B. L. (1978). Fundamental pattern of knowing in nursing, *Adv Nurs Sci*, 1(1),

13-18.

- Crotty, M. (1996). *Phenomenology and Nursing Research*, trans. by Shin, K.L& Kong, B. H.(2001). Seoul: hyunmoon.
- Giefert, G. (1995). *Einführung in die Ästhetik*. München: UTB.
- Gadamer, H. G. (1975). *Wahrheit und Methode*. Tübingen: J.C.B.Mohr.
- Heidegger, M. (1952). *Holzweg*. Frankfurt am Main: Vittorio Klostermann.
- Heidegger, M. (1981). *Über den Humanism*. Frankfurt am Main: Vittoria Klostermann.
- Kant, I. (1974). *Kritik der Urteilskraft*. Frankfurt am Main: Suhrkamp.
- Kong, B. H. (1999). Schellings Philosophie und die Bedeutung der ästhetischen Anschauung, *The Korean J of Aesthetics*, 27(2), 1-35.
- Kong, B. H. (1999), Aesthetical Knowing and Nursing Action as an Art in Nursing Science, *J of Korean Acad Society of Nurs Education*, 5(2), 153-164.
- Madjar, I., &Walton, I. A. (Eds.), (1999). *Nursing and the experience of illness*. London: Routledge.
- Merleau-Ponty, M. (1962). *Phenomenology and perception*. London: Routledge&Kegn Paul.
- Merleau-Ponty, M. (1973). *Sence and Nonsense*.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 Palmer, R. E. (1993). *Hermeneutics*, trans. by Lee, H. Y. Seoul: Munya.
- Sadelowski, M. (1995). On the Aestheics of Qualitative Research, *J Nurs Scholarsh*, 27(3), 205-209.
- Shin, K. R. (2000). The lived women's experience of mastectomy, *Korean Academic Society of Women's Health*, 1(1), 101-145.
- Spiegelberg, H. (1991). *The phenomenological movement*. The Hague: Martinus Nijhoff,
- Van Manen, M. (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New York: Sunny Press.
- Watson. J. (1988). *Nursing: Human Science and Human Care. A Theory of Nursing*. New

York: NLN press.

Zimmermann, F. (1977). *Einführung in die Existenzphilosophie*. Darmstadt.

- Abstract -

An Aesthetical Thinking in Phenomenological Research of Nursing Science

Kong, Byung-Hy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lluminate the relation between the aesthetics and qualitative nursing research, and especially to consider the aesthetical characteristics of phenomenological nursing research which may reflect works of art. Method: Based on Heidegger, Merleau-ponty and Gadamer' philosophical aesthetics, this study shows how aesthetical thought can be is applied to artistic creation and aesthetical criticism in the phenomenological research of nursing. Result: The result of aesthetical characteristics of phenomenological nursing research were as follows: 1) Poetical thought of the client's experience as the living is revealed as poetic expressions in forms of listening gazing, reflection and metaphor. 2) Literature works, paintings, poetry and fiction used as sources of lived-experience help to awaken insight into the essence of lived-experience. 3) Aesthetical evaluation of phenomenological product as art is related to the harmony as a whole, especially to the ability to do vicarious lived-experience of the client. Conclusion: In order to produce creative phenomenological works in nursing research, two suggestions are made: aesthetical thought and poetic language in phenomenological

* Full-time Instruct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Nursing, Chosun University

reflective writing which enables researchers to transmit the essence of the lived-experience.

Key words : Qualitative nursing research,
Phenomenology, Aesthetics,
Poetical thinking